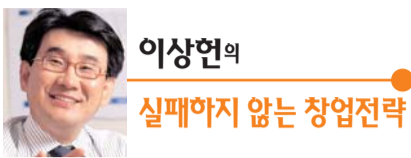


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이상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대담성, 신

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과 술선수법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 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

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할 수가 없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요인 탓을 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주 희망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진행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37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을 모아 마련한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실천하기' 기금으로 조성됐다.

/대우건설



기아차,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전 'SLOW 캠페인'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전국 3개 지점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전 'SLOW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기아차는 롯데백화점 일산점(7월13일~22일), 영등포점(7월25일~8월1일), 평촌점(8월4일~12일) 등 총 3개 지점 문화홀에서 SLOW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누구나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기아차

10명이 나눠맞는 주사액



기지 수집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누구나 자식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유료와 무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핵예방 백신(BCG)은 경피용(도장형)과 피내용(주사형)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소아 결핵 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의 공

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을 재개했다. 총 4만5000바이알(45만명분)이 출하됐으며,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피내용 BCG가 공급됨에 따라 품질기간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됐던 경피용 BCG는 다시 유료(7만원)접종으로 전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경피용 BCG는 피부에 백신을 바른 후 관침을 이용해 피부를 통해 백신을 흡수시켜 접종하지만, 피내용 BCG는 진피내에 주사액을 주입해 5~7mm팽진을 형성

시켜 접종한다는 점이 다르다. 게다가 피내용 BCG는 10인이 나눠맞는 백신으로,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경피용 BCG가 다시 유료화된 점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사액 오염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 걱정 없는 경피용 BCG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해마다 공급 불안정으로 이미 불편을 겪고도 피내용 BCG만을 고집하니 백신 수급 안정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tree6834@metroseoul.co.kr



한샘, '5년째 토크콘서트 후원' 감사패 받아

한샘이 2013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부모교육토크콘서트 '부모, 길을 묻다'로 감사패를 받았다. 16일 한샘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토크콘서트는 올해에도 이달 15일을 시작으로 22일과 8월26일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공연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15일 '부모, 길을 묻다' 강연에서 한샘 원홍석 대외협력팀장(오른쪽)이 양원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예술정책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 김현환 ◇과장급 전보 △분석과장 노점환 △소통협력과장 강동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파견) 이선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파견) 안현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무홍보과장(교무) 안중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장 이종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최유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박경숙
- ◆한국전기안전공사 ◇3급 승진 △홍보실 박철승 △기획혁신처 예산부 최종민 △기획혁신처 정책총괄부 이승준 △경영지원처 건축자산관리부 박영준

△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김미선 △강원지역본부 강원동부지사 홍영래 △전기안전연구원 안전연구부 허용석 △전략설비감사처 발전사용전검사부 송재성 △기획혁신처 성과관리부 심명수 △전기안전연구원 안전연구부 이진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지사 정인철 △검사점검처 점검부 정지훈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지사 박순성 △전기안전교육원 교육지원부 최지성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상민 △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장 이준기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장 최정민

◆라니아생명 ◇상무 △CX협력본부 브랜드팀 김현주 ◇이사 △Sales협력본부 제휴개발사업부 이종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실장 △소통실장 문태금 △서비스리얼스실장 김문락 △혁신성장실장 정성대 △마케팅2실장 오용식 △강남코엑스점장 정수용 △강북힐튼점장 권익준 △부산롯데점장 박강우 ◇팀장 △서비스리얼스실 코엑스팀장 한미정 △삼사기획팀장 윤병호 △반부패청렴팀장 윤서현 △신사업추진팀장 유봉기 △인권법무팀장 문치택 △혁신성장팀장 김철 △성과평가팀장 성주현 △사회적기차추진팀장 사철원 △혁신인사팀장 김현태 △윤리경영팀장 이종원 △재무관리실 힐튼경리팀장 양혜리 △광고이벤트팀장 한동근 △공항공전팀장 장재원

△영양혁신팀장 김익돈 △강남코엑스점 운영기획팀장 김현수 △강남코엑스점 머신영업팀 류세열 △강북힐튼점 오피레이션2팀장 김진 △강북힐튼점 머신영업팀장 서정환 △부산마케팅1팀장 김대근

◆데벨 ◇편직국 △벤처중기부 차장 김세연 △산업2부 차장 김장환 △차본시장부 차장 민경문

부음

▲ 김홍규씨 별세,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모악재문화원 1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장지 고창군 선영. 063-221-4400

▲ 오규영씨 별세, 오진웅(이용호 의원실 보좌관)씨 부친상 = 16일,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302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1-323-0044

▲ 유병택씨 별세, 이학재씨 남편상, 유재형(아주그룹 미래전략실장 겸 자동차부문 총괄대표)·재용(넥스퍼파이낸스 고문)·용재(동원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씨 부친상 = 13일,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제17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하남시 선영. 02-3410-6917

▲ 박석환씨 별세, 강승희(KB증권 Equity파생운용부장)씨 빙부상 = 15일 상계백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938-5320



아모레퍼시픽, '美최대 뷰티 페스티벌' 참가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최대 뷰티 페스티벌인 '뷰티콘(Beautycon) LA'에서 K-뷰티 열풍을 선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4일~15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뷰티콘 LA'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2만 2000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부터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아이오메까지 총 5개 브랜드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모레

유유테이진 전문경영인에

이동욱 사장 영입

유유제약의 관계사인 유유테이진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 중장기 사업포트폴리오 전략가능 강화를 위해 이동욱 사장(사진)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욱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중의계약, 한국화이자 등에서 영업·마케팅과 신제품 런칭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다. 최근 13년

간은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가정용 산소사업, 의료용 산소·액체산소 사업 등의 책임자를 역임한 전문경영인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721-9800, FAX: 027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721-9851, 9826
독자센터	027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93호